



2019년 5월 26일(제930호) 부활 제6주일(청소년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평화를 빕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평화! 여러분은 과연 평화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생각을 해보다가 정말 뜬금없이 사전에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정의의 첫 번째는 ‘평온하고 화목함’이고, 두 번째는 ‘전쟁이나 분쟁 따위가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전쟁이 없다고 ‘평화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인데, 이런 나라에서 진정 오늘 여러분은 평화로우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평화스럽지 않았을까요? 이것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저의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의미가 있나! 그렇게 하루 이틀, 그러다 보니 진짜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무엇이든 잡히는 대로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에 몰두하게 되면 다 잊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몰두하지만 돌이켜 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제가 매달린 곳은 하느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어느 날 기도 안에서 뜨거움을 체험하며 ‘아! 평화란!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꼈던 부족한 저의 체험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심각했던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평화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닐까요? 이것은 ‘그 어떤 욕심도, 그것을 갖지 못한 불안감도 없는 스스로 만족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평화를 빕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온화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서로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것으로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평화로운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박상빈(2017년) 신부
회성대(10진비전)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사도 15,1-2.22-29

회답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제 2 독 시

묵시 21,10-14.22-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요한 14,23-29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오반지 바오로



성인명: 오반지 바오로 (吳盤池 Paul)
신분: 순교자
활동연도: 1813-1866년

오반지(吳盤池) 바오로는 충청도 진천의 반지(현,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던 집안 출신으로, 비교적 풍요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장성할 때까지 공부와는 담을 쌓았으며, 혼인한 뒤에는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날려 버리고 말았다.

오 바오로가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된 것은 40세가 훨씬 지난 1857~1858년 무렵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날에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가족과 함께 진천의 지장골(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로 이주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그리스도교적인 체념으로 가난을 참아 견디었으며,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본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나갔다. 오 바오로의 열심은 이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마자 청주 병영에서 과건된 포졸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지장골로 들이닥쳤다. 그는 한 젊은이와 함께 체포되어 진천에 투옥되었다가 청주로 이송되었으니, 이때가 3월 13일(음력 1월 27일)이었다.

청주 병영으로 압송된 오 바오로는 모진 형벌과 문초 가운데서도 교회 일을 조금도 누설하지 않았으며, 단지 '나는 천주교인이에요.'라는 말만을 되풀이하였다. 관장은 어떠한 형벌과 유혹으로도 오 바오로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알고는 마침내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사형 집행을 관장하는 관리가 마지막으로 배교를 유도하려고 종이를 갖다주자, 그는 끝까지 '배교한다는 말을 쓸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오반지 바오로의 옆에 있던 사형 집행인이 그에게 달려들어 군중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목을 졸라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오 바오로가 순교한 날은 1866년 3월 27일(음력 2월 11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53세였다.

복	음	목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IMAGO DEI (하느님의 모상대로)

꿈꿔 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참 인간다운 세상에서
 밝고, 맑게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임께서
 꿈꾸신 바로
 그 세계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화이야기

베드로 성인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포드 매독스 브라운, 1852년~1856년 제작
캔버스 위 유화, 140x120cm / 런던 테이트 미술관, 영국

이 그림은 최후의 만찬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다. 예수님은 온몸을 굽혀 베드로 성인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며, 베드로 성인은 두 손을 모은 채,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듯 보인다.

그림 왼쪽 뒤편에 자신의 신발을 풀고 있는 제자의 모습도 보이는데, 그 옆의 몇몇 제자들은 두손을 머리에 싸매고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림 속의 예수님은 지극히, 너무나 지극히 겸손하신 모습이며, 다음날 당신이 십자가형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침착해 보이신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부활 제6주일: 연무대 장진진 신부

◆ 교구장 동정

- 한밭(32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5월 26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5월 28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교구 청소년대회 참가 신청 안내

- 대상 : 교구 내 중1~고2 청소년(총 30명)
- 일시 : 2019년 7월 29일(월)~8월 2일(금)
- 장소 : 베트남 다낭
- 금액 : 130만원(총 170만원, 교구지원 40만원)
- 모집기한 : 2019년 5월 31일(금)
- 문의 : 교육국(02-749-1921, 내선번호 4번)

“모든 이를 섬기는 삶” -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